

##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대한 考察

李敬愛 · 朴性植 · 李源哲 \*

### A study on a term of 'Jangbu theory 臟腑論' in 'Dong-E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Lee Kyung-Ae · Park Seong-Sik · Lee Won-Chul \*

Dept. of Inter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ong Guk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a term of 'Jangbu theory 臟腑論' in 'Dong-E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The conclusion would be summerized as follows.

1. 'Jangbu theory 臟腑論' of 'Sa-Sang medicine 四象醫學' is based on 'Sa-Sang structure 四象構造'.
2. 'Mind 心' of 'Sa-Sang medicine 四象醫學' is recognised as the Lord of body.
3. 'four-Jang 四臟' and 'four-Bu 四腑' constitute 'Sa-Sang structure 四象構造' which is based on the deviation of 'vital energy 氣', and 'four-Jang 四臟' plays a loading role.
4. 'Sacho 四焦' explains the whole fuction of human body including one's heart's desire, physical constitution and the visceral physiology.
5. 'ear-eye-nose-mouth 耳目鼻口' is connected with 'the profound secrets of nature 天機' and also has a close relation with creation of 'spirit-vital energy-blood-essence 神氣血精' and spiritual fuction.
6. 'SaHae theory 四海論' of 'Dong Mu 東武' is philosophical concept set on the basis of 'nature 天性' and 'life 人命'.
7. 'spirit-vital energy-blood-essence 神氣血精' doesn't have the relation of mutual transformation. It's creation and consumption lies on 'the power of ear-eye-nose-mouth 耳目鼻口之力'.
8. 'Sa-Sang medicine 四象醫學' expands its theory centering on the deviation of 'vital energy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 教室

氣' and the transversal circulation of 'SaHae 四海'.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 'Jangbu theory 臟腑論' in 'Dong-Eui-Su-Se-Bo-Won 東醫壽世保元' should be understood on the basis of 'Sacho 四焦' and 'SaHae 四海' according to 'Sa-Sang structure 四象構造', accompanying philosophical thinking focused on human and society, the central concept of 'Jangbu theory 臟腑論' could be said as 'Mind 心' to be the Lord of body.

## I. 緒 論

既存醫學이 人間과 그 주위의 天地自然과의 有機的 相應性을 전제로 하는 우주적 시스템인 반면 四象醫學은 人間社會의 倫理道德에 기초한 哲學을 背景으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은 哲學的 思考에 의한 人間과 社會의 理解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東武 李濟馬가 東醫壽世保元을 著述한 이후로 四象醫學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四象醫學의 臨床的인 面뿐 아니라 四象醫學에 대한 基礎的인 面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되고 있으며 이것은 臨床的인 面과 哲學的인 面 어느 한편으로 치우쳐서도 안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臨床과 함께 東醫壽世保元의 哲學的 基礎가 되는 前篇의 이해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臟腑論은 東武 四象論이 醫學으로 성립될 수 있는 基礎學이며 性命論, 四端論, 擴充論의 四象原理의 綜合된 結論이며 이것에 의하여 비로소 四象人의 新人間象이 總體的으로 成立되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학문의 성격상 같은 名稱과 語彙를 使用하고 있지만 既存醫學과 그 의미를 달리하므로 실제로 四象 臟腑論을 이해하는데 그 뜻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사용된 臟腑의 名稱과 語彙를 분석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四象 臟腑論의 특징과 既存 臟象論과의 차이점을 인식하고자 한다.

## II. 本論 및 考察

### 1. 東武 臟腑論의 特徵

東武는 太極-陰陽-四象을 論하면서 四象을 本質的 要素로 간주하고 八卦는 단지 四象의 陰陽的 分化象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四象은 四象構造와 깊은 관련이 있다. 人體의 四象은 兩儀生四象에서 얻어진 陰陽論의 四象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陰陽論의 符號로 四象이라는 易學的 符號를 차용하여 人稟驥理를 설명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것은 人體의 四象構造가 陰陽論의

- 1) 池圭籍,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 2)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 3)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4. No.1. 1992. p19, p27
- 4)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2. 1990. pp87-100

上下, 表裏, 寒熱 등의 對待原理에 의해 성립되었음을 보여준다.<sup>5)</sup> 따라서 臟腑論의 구성도 陰陽論의 四象에 따른 四象構造를 中心으로 하며 그 構成原理도 上下陰陽 偏差에 基礎하고 있다.<sup>6)</sup> 五臟中의 心은 中央之太極이고 五臟中의 肺·脾·肝·腎은 四維의 四象이 된다. 즉 東武의 臟腑論에서는 五臟中에서 四臟인 肺·脾·肝·腎은 臟理로 나가며, 心은 根源의 心인 一身之主宰의 心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臟腑論에서는 단순히 生理機能만을 설명하지 않고 性命論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天時·歲會·人倫·地方과 같은 哲學的 思惟와 사람의 감각기 耳·目·鼻·口를 통하여 듣고 보고 냄새 맡고 맛 본다는 것으로 화합하여 발생되는 현상에서 神·氣·血·精이 充滿하면 그 기운이 頭腦, 背脊, 腰脊, 膀胱으로 주입되며 다시 賦海·膜海·血海·精海를 조성함을 시사하고 있다.<sup>7)</sup>

既存醫學에서 살펴보면 古代에는 臟腑學說을 가리켜 “藏象學說”이라고 하였는데, “藏象”이라는 명사는 <素問·六節藏象論><sup>8)</sup>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五臟六腑의 生理機能과 外在하는 環境과의 관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sup>9)</sup>

臟腑의 生理機能을 인식함에 있어서 內經은 완전히 解剖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환경이 하나의 통일된 整體라는 觀念下에서 오랜 의료경험을 통하여 人間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연구를 진행하였던 것이며 陰陽五行學說을 이용하여 이들을 論證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藏象學說과 현대의 解剖學, 生理學間에 類似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적인 解剖, 生理知識을 가지고 藏象學說을 완전히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sup>10)</sup>

古人들은 人體의 복잡한 生命活動을 모두 內臟의 機能活動에 淵源이 있는 것으로 認識하여 안으로는 消化와 循環으로부터 밖으로는 言行視聽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도 內臟活動의 표현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內臟의 活動이 곧 人體의 生命활동이 되는 것이다. <素問·靈蘭秘典論><sup>11)</sup>에 기록된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肺者 相傳之官 治節出焉; 肝者 將軍之官 謀慮出焉; … 膀胱者 州都之官 津液藏焉 氣化則能出矣”는 各 臟腑마다 나름대로 독특한 機能을 발휘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機能들이 各自 獨立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協調하는 가운데서 全體的인 生命活動을 維持해 나간다는 사실이 보다 중요하다.<sup>12)</sup>

四象醫學이나 既存醫學의 臟腑學說 모두 단순한 臟腑의 生理機能만이 아닌 모든 生命活動을 표현하고 있어 韓醫學的인 人間의 포

- 5)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 6)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학회지 Vol.2. 1990. pp87-100
- 7)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85-87, pp92-93
- 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9)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 10)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 11)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1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팔각 臟腑概念에서는 一致하지만, 四象醫學은 四象構造中心의 臟腑論을 전개하고 있으며 既存醫學은 陰陽五行中心의 臟象論을 전개하고 있다.

## 2. 東武 心論

四象醫學은 既存醫學의 五行을 中心으로 한 이론체계와는 달리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로 인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既存醫學의 五行의 思考를 바탕으로 四象醫學에서의 心을 이해하려 한다면 오류를 범하기 쉽다.

既存醫學이 內經을 기초로 하여 보다 실용적 수단으로 발전하여 온 것에 비하여, 四象醫學은 그 思想的 背景을 儒學에 두고 있어<sup>13)</sup> 哲學으로써 당연히 갖게 되는 形而上의 관점에서 인간의 本性和 本質을 바라보게 된다. 東武 李濟馬는 이러한 既存 儒學의 관점에서 나아가 인간을 精神과 肉體의 통일체로 보는 心身一如의 四象的 醫學觀을 創案하였다. 물론 既存 醫學과 儒學의 관점도 이와 같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儒學은 形而上의 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을 파악하였고, 既存醫學은 氣의 現象的 側面에서 인체의 機能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우선 儒學 및 四象醫學에서의 心을 살펴보면, 東武의 四象醫學이 思想的 淵源을 儒學에 두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5)</sup> 그러므로 儒學, 특히 性理學에서의 心 개념은 四象醫學에서의 心 개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性理學 특히 조선 性理學에 다루어졌던 理氣·性情·心體論은 四象醫學에서의 心 概念

형성에 근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17C에 많은 思想論爭이 일어나는데 퇴계의 ‘理發氣隨之, 氣發理隨之’의 二元論을 尊崇하는 嶺南學派(南人)와 ‘氣發理隨之’만을 인정하여 主氣論의 입장을 견지하는 울곡계의 畿湖學派(西人)가 人造반정을 계기로 朝鮮性理學의 主流로써 그 시대를 지배하였다.<sup>16)</sup> 以後 西人은 다시 老論과 少論으로 나뉘어 대립하면서 학계를 주도하는 가운데, 老論內에서 울곡의 조선성리학을 이해하는 문제를 놓고 湖派와 洛派로 갈라져 대논쟁을 벌이게 되었다. 湖論에서는 ‘心體本善有善惡’으로 요약된 ‘聖凡心同不同’의 경우 즉 聖人과 凡人의 心體가 동일할 수 없고 聖人이 되기 위해서는 기질변화의 후천적 노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人物性不同’에 대하여는 人性과 物性이 다르다는 입장을 견지하였다. 이에 반해 洛論에서는 聖人과 凡人의 心體에는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나 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性同而氣異’라는 논리에서 人과 物에 모두 五常이 갖추어져 있다고 하여 人과 物의 차별성을 부정하였다. 이 중 보편성을 강조하는 洛派가 考證學을 수용하여 北學思想으로 재구성하게 되며, 서구사상이 들어오면서 이를 수용하여 開化思想으로 재구성하는 밑받침이 되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朝鮮性理學의 법동은 울곡계 학파를 중심으로 내려왔다고 추정함이 타당하다.

李濟馬가 心을 性情의 관계로 인식하고 性情을 一元的 氣의 차원에서 이해하였다는 것, 性을 純善이라 하여 性을 곧 理라고 인식하

13) 李乙浩: 한국개신유학서론, 博英社, 1982, pp360-385

14)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이병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15) 李乙浩: 한국개신유학서론, 博英社, 1982, pp360-385

16)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였다는 것<sup>17)</sup>, 心을 精神思惟活動의 本發處로 보고 心則氣의 見解를 표방하였다는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그의 思想과 理論이 朝鮮性理學의 영향을 깊이 받았다<sup>18)</sup>는 것을 알 수 있다.

性理學에서의 心의 개념은 一身의 主宰者로써 육체에 대비되는 정신활동의 總體로서 既存醫學의 五臟에 포함되는 血肉之心과는 그 차원이 다르다.

東武의 心 개념이 비록 太極之心, 心身之心, 四象之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나, 그 기본적인 思想은 性理學에서의 心 개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추정된다.<sup>19)</sup> 즉 四象醫學에서의 心 개념은 太極으로서의 心과 陰陽論에 대비되는 心身の 개념이며 事·心·身·物의 心은 陰陽論的 心身の 分屬개념이라 할 수 있다.<sup>20)</sup> 따라서 四象醫學에서의 心은 既存醫學이나 儒學에서의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陰陽論과 같은 相對的 可變性을 갖게 되니, 東武는 이를 가르켜 ‘不必執一而置疑也’<sup>21)</sup>라 하였다.

東武는 太極心에 대하여 “心爲一身之主宰 負隅背心 正向膻中 光明瑩澈 耳目鼻口無所不察 肺脾肝腎無所不付 頷臆臍腹無所不誠 頭手

腰足無所不敬”<sup>22)</sup>이라 하였는데, 이것은 心이 一身의 主宰者로서의 象徵性을 나타낸 것이며, 나아가 인간이 存在하는 理致이면서 目的인 절대의 純理임을 밝힌 것이다.

東武는 兩儀의 心身に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身有兩用 誠身敬身也 心有兩用 理心利心也 誠身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敬於坤也 理心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利於坎也 擇理未精則理亦利也 擇利得正則利亦理也.”<sup>23)</sup> 이것은 心·身의 현상적 측면에서 人間 行爲의 本性에 대한 정의이다. 결국 兩儀의 心身이란 用의 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心은 理와 利를 헤아리는 形而上의 精神活動으로, 身이란 이를 바탕으로하거나 또는 物에 스며있는 고유의 本性에 따르는 形而下의 可視的 行爲라 정의될 수 있다. 비록 東武가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어도 이를 근거로 하여 心身の 體에 대하여 유추하여 보면, 心은 性情의 本發處로 精神思惟活動能力 자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身은 臟腑를 포함하는 外形의 肉體와 이를 바탕으로 나타나는 生理機能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sup>24)</sup> 浩然之氣는 肺脾肝

17) 性純善也 聖人與君子小人一同也 心可以善惡也…性即理也 未來也 聖人與君子小人 一同 理於未來也。(反誠箴·兌箴)  
 朴爽彦: 格致藁. 太陽社. 1985. p13, p193, pp287-289

18)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병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19)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병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20) 易曰 易有太極 始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八卦定吉凶 吉凶生大業 太極 心也 兩儀心身也 四象事心身物也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反誠箴·巽箴)  
 朴爽彦: 格致藁. 太陽社. 1985. p13, p193, pp287-289

21) 太極之心 中央之心也 心身之心 兩儀之心也 事心身物之心 四象之心也. 易繫辭之乾坤 以兩儀之乾坤言之也 八卦之乾坤 以八卦之乾坤言之也 六十四卦之乾坤 以六十四卦之乾坤言之也 中央之心 兩儀之心 四象之心 亦類此也. 統以言之 則六十四卦 皆 太極也 六十四卦之三十二卦 皆乾也 八卦 皆心也 不必執一而置疑也. (反誠箴·巽箴)  
 朴爽彦: 格致藁. 太陽社. 1985. p13, p193, pp287-289

22) 李濟馬: 東醫壽世保元(臟腑論).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23) 朴爽彦: 格致藁(反誠箴·巽箴). 太陽社. 1985. p13, p193, pp287-289

24)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병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腎에서 나오고 浩然之理는 心에서 나오는데<sup>25)</sup> 氣란 活動의 源泉이며 理란 是非明辨의 道理이다. 여기서 心은 浩然之理出於心의 主宰心과 一心之慾의 慾心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浩然之理는 鄙薄貪僞와 같은 心慾을 明辨할 수 있는 理致인 만큼 主宰心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sup>26)</sup>

太極之心이 不變의인 存在의 絶對 理致이며 至高至善한 絶對의 善이라면 兩儀之心과 四象之心은 身 또는 事·身·物과 함께 可變의인 相對性을 가진다. 따라서 心의 개념은 고정불변의 성질이 아니라 陰陽과 같이 相對性을 갖는 對置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心은 身 또는 事·身·物과의 相對性을 갖기 때문에 이것은 陰陽의 屬性과 같이 분속 또는 통합될 수 있는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四象醫學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心(太極), 心身(兩儀), 事·心·身·物(四象)의 용어에서 보듯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개념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心의 개념은 서로 다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既存의 心개념과도 많은 차이를 보인다.

臟腑論에서 살펴보면 “五臟中の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一身의 主宰로서 네 귀통이와 마음을 등에 지고 앞가슴의 중앙을 울바로 향하면 불빛처럼 밝게 빛나서 耳目鼻口는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고 肺脾肝腎은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없고 額臆膺腹은 정성을 다하지 않는

것이 없으며 頭手腰足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없게 된다”<sup>27)</sup>고 하여 心의 機能을 他臟에 비해 우월한 입장에서 이들을 管轄하며, 儒略에서 事·心·身·物 각기의 四端으로써 총체적인 心을 파악한 것과 같이 耳目鼻口, 肺脾肝腎, 額臆膺腹, 頭手腰足과 紐帶를 가지고 一身을 主宰하는 철저한 立體構造的인 四象論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心은 肉身과 不可分離의 관계로서 無形의 心 現象이 나타나는 것은 肉身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無形의 心 現象을 一元的 氣의 次元에서 이해하고 이를 事·心·身·物의 四象構造로 有形의 肉身에 분속하여 精神과 肉身의 生命現象을 一元化한 醫·哲學 原理는 東武의 큰 업적이라 할 수 있다.<sup>28)</sup>

既存醫學에서의 心概念에 대하여 살펴보면 <類經圖翼>에서는 “心居肺管之下 胸膜之上 附着脊之第五椎…心象尖圓 形如蓮蕊…心外有赤黃裹脂 是爲心包絡”<sup>29)</sup> 이라고 하여 心의 위치는 胸腔의 내부· 횡경막의 상부· 肺의 하부이며, 형태는 둥글면서도 위가 뾰족하여 아직 개화되지 않은 연꽃과 같다고 하였다. <醫學入門>에서는 “心者 一身之主 君主之官 有血肉之心 形如未開蓮花 居肺下肝上是也 有神之心 神者 氣血所化 生之本也 萬物由之 盛長不著色象 謂有何有 謂無復存 主宰萬事 萬物虛靈不昧者是也”<sup>30)</sup>라고 하여 ‘血肉之心’과 ‘神明之心’의 說을 主張하였다.

25) 浩然之氣出於肺脾肝腎也 浩然之理出於心也 仁義禮智四臟之氣擴而充之則浩然之氣出 於此也 鄙薄貪僞一心之慾明而辨之則浩然之理出於此也。(四端論)

李濟馬：東醫壽世保元，杏林書院，1986. pp5-7, pp19-24

26) 洪淳用，李乙浩：四象醫學原論，행림출판，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27) 心爲一身之主宰 負膈背心 正向臆中 光明瑩澈 耳目鼻口無所不察 肺脾肝腎無所不付 額臆膺腹無所不誠 頭手腰足無所不敬。(臟腑論)

李濟馬：東醫壽世保元，杏林書院，1986. pp5-7, pp19-24

28) 金義泰，河智容，安圭錫：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병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29) 張介賓：類經圖翼，大星文化社，1986. p79

30) 李樾：編註醫學入門(臟腑)，大星文化社，1986. p326

心的 중요한 생리기능은 血脈과 神志를 主管하는 것인데 첫째, 血脈을 主管하는 機能을 보면 <素問·五臟生成篇>에서는 “諸血者皆屬於心”<sup>31)</sup>이라 하였고, <素問·痿論>에서는 “心主身之血脈”<sup>32)</sup>이라 하여 全身의 血과 脈이 心에 統屬됨을 설명하고 있다. 心主血이란 心の 陽氣가 血液生成을 촉진하고 血液을 全身 經脈으로 運行하도록 推動하여 全身을 營養 濡潤하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水穀精微가 脾胃에서 肺로 上升하여 心陽으로 因해 化赤하여 血이 된다. 心臟과 脈管은 서로 연계되어 血液은 脈管을 쉬지 않고 순행하므로 心臟은 血液循環의 樞紐가 된다.<sup>33)</sup> 血液循環은 心氣의 推动作用에 의하고, 心氣가 充足하면 心臟搏動도 有力하여 血液이 비로소 全身各處로 正常 運行하게 된다. 둘째, 神明을 主管하는 機能을 보면 <靈樞·本神篇>에서는 “所以任物者謂之心”<sup>34)</sup>이라 하여 心이 外部에서 정보를 받아들여 精神活動과 연관됨을 설명하고 있다. 心藏神이란 心이 人體生命과 精神意識思惟活動을 主管하는 것을 말한다. 人體의 生命活動은 各 臟腑活動의 表現이며 各 臟腑의 機能活動은 모두 心身의 主宰와 調節下에서 完成되어진다. 臟象論에서는 五臟을 중심으로 하는 整體觀으로 정신활동을 五臟에 歸屬시켰는데<sup>35)</sup> 그 중에서도 주로 心에 歸屬시켰으며,

정신활동은 氣血을 주된 物質的 基礎로 삼고, 全身의 血이 心臟에 統屬되기 때문에 ‘神志’ 역시 心臟이 主管하게 된다. 心の 血脈과 神明을 主管하는 機能은 전체적인 生命활동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心臟에 있어서 血脈을 主管하는 기능이 正常이면 臟腑 및 組織器官이 正常的인 생리기능을 발휘하게 되어 生命활동이 이어진다. 또 精神活動은 생리활동의 중요한 일부일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하에서 人體의 모든 생리기능에 영향을 미쳐서, 평형과 조화를 유지하게 한다. 그러므로 <靈樞·邪客篇>과 <靈樞·口問篇>에서는 心을 “五臟六腑之大主”<sup>36)</sup>라 하고, <素問·六節藏象論>에서는 “生之本”<sup>37)</sup>라 하고 <素問·靈蘭秘典論>에서는 “君主之官”<sup>38)</sup>이라 하여 心이 臟腑中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心の 血脈과 神明을 主管하는 機能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血은 神志活動의 주요한 物質基礎이며, 神의 生理·病理가 모두 血液의 盛衰와 관계가 있으므로 心神은 血脈의 營養供給을 통해 作用을 발휘한다. 즉 心은 血脈을 主管하여 脈의 血液이 全身을 循行하도록 推進運動을 함으로써 神志活動에 필요한 物質基礎를 제공하며, 意識活動은 일정한 조건하에서 人體의 모든 生理機能의 조화와 平형에 영향을 미친다. 그

- 31)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32)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33) 曾昭明, 何清平：中醫臟象學解要釋難. 廣西民族出版社. 1992. pp7-8
- 34)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85, p87, p190, 259, 494
- 35) 朴贊國：臟象學. 成輔社. 1992. pp165-168
- 36)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85, p87, p190, 259, 494
- 37)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38)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중에 心이 血脈을 主管하는 기능이 非正常이면 神志에 변화가 생기며, 精神活動에 異常이 생겨도 그 영향이 心臟이 血脈을 主管하는 機能에 미친다.<sup>39)</sup>

이와 같은 心의 중요한 생리기능은 血脈과 神志를 主管하는 것이다. 이것은 心陰·心陽과 心氣·心血이 협동하여 작용한 결과이다. 心陽·心氣는 血脈을 主管하여 血脈의 순환운동을 溫煦하게 하고 推動시키며, 또한 神志를 主管한 즉, 精神意識思惟活動을 정상적으로 작용하게 한다. 아울러 기타 臟腑를 總管하여 生理活動을 협조케 한다. 心陰·心血은 血脈을 充盈하여 心臟을 滋養하고 心陽을 涵養하여 偏亢치 않게 하고, 能히 心神을 藏하여 收斂安藏케 한다. 그러므로 心은 五臟六腑의 主宰로 인식되는 바 생명활동의 근본이 된다. 따라서 心의 病變은 心主血脈의 이상 상태와 精神·情志의 변화와 같은 病理變化가 나타나니 心悸, 胸痛, 失眠, 多夢, 神昏, 發狂 등을 증상으로 한다.<sup>40)</sup>

既存醫學은 心을 有形之心과 神命之府로서의 無形之心으로 인식하여 形而上學的 臟器로 이해함과 동시에 五臟의 하나로 보고 氣의 現象의 側面에서 認識하고 있는데 반하여, 四象醫學에서는 心을 肉體活動에 대비되는 精神活動의 全體로서 認識하고 있다. 이러한 認

識方法은 儒學에서 근본되는 것이다. 즉 東武의 心은 耳目鼻口, 肺脾肝腎, 頤臆臍腹, 頭手腰足과 紐帶를 가지고 一身을 主宰하며, 太極之心, 心身之心, 四象之心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정된 개념이 아닌 相對的 可變性을 갖게 되니, 東武는 이를 가르켜 ‘不必執一而 置疑也’<sup>41)</sup>이라 하였다.

既存醫學에서의 心概念은 心主血脈의 有形之心으로서의 機能, 精神思惟活動을 나타내는 神之府庫로서의 無形之心 그리고 이들을 통합하고 운용하여 주관하는 主宰的 성격으로 요약된다. 心의 一身에 대한 主宰性은 四象에서의 太極之心의 성격에 포함되며, 無形之心의 精神思惟活動은 兩儀之心의 일반적인 心概念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心主血脈의 有形之心은 四象의 肺脾肝腎의 生理功能에서 그 의미를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sup>42)</sup>

### 3. 四臟四腑

四象臟腑論에서는 水穀之四氣(溫熱涼寒)의 流通行路에 따라 四系列로 나누어 四黨이라 하는데, 人體의 上下表裏와 認知範圍에 의한 四部位論의 概念에 의해 四黨을 이루게 되어 自體黨內的 循環에 의한 生理病理를 把握하게 된다. 四黨은 縱橫으로 陰陽論의 上下 表裏 寒熱 等の 對待原理에 의하여 관계가 형성된

39) 朴贊國: 臟象學. 成輔社. 1992. pp165-168

40) 文濬典, 安圭錫, 崔昇勳: 東醫病理學. 高文社. 1990. pp185-186

41) 朴爽彦: 格致叢. 太陽社. 1985. p13, p193, pp287-289

42)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학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다.<sup>43)</sup> 四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sup>44)</sup>

肺黨-胃院 舌 耳 頭腦 皮毛

脾黨-胃 兩乳 目 背脊 筋

肝黨-小腸 臍 鼻 腰脊 肉

腎黨-大腸 前陰 口 膀胱 骨

이것은 上下陰陽의 크기에 따라 對應을 이루게 되므로 肺는 肝과, 脾는 腎과 配對된다. 이것은 既存의 五行의 歸類와는 연결시킬 근거가 없으며 全的으로 上下陰陽의 시스템에

의한 구분이며<sup>45)</sup> 또한 인체의 臟器構造는 四焦(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에 의한 垂直的構造이다.<sup>46)</sup> 氣의 陰陽的 上下偏差에 따라 인체의 水穀之氣가 溫熱涼寒으로 나타난다. 四象醫學에서는 陰陽的 上下의 氣를 天人에서부터 人體의 體形 및 臟腑生理에까지 一貫性을 두고 있다.<sup>47)</sup>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표를 만들 수 있다.<sup>48)</sup>

<표 1>

四氣	四焦	四官	四腑	四肢	前四海	四臟	四行	後四海
溫氣	上焦	耳	胃院	頰	津海	肺	頭(頭腦)	髓海
熱氣	中上焦	目	胃	體	膏海	脾	肩(背脊)	膜海
涼氣	中下焦	鼻	小腸	臍	油海	肝	腰(腰脊)	血海
寒氣	下焦	口	大腸	腹	液海	腎	腎(膀胱)	精海

四象에서의 肺脾肝腎은 인체의 生理機能을 담당하는 中樞로서 四象의 체계로 인식되는 것이기 때문에 五行의 思考의 肺脾肝腎과 다르다. 肺와 肝은 呼吸氣液의 門戶로서 肺는 呼氣液하고 肝은 吸氣液하는 作用을 담당하며,

脾와 腎은 水穀을 出納하는 府庫로서 脾는 收納하고 腎은 排出하는 作用을 담당한다. 즉 肺의 呼氣液하는 작용은 異化作用을 의미하고, 肝의 吸氣液하는 작용은 同化作用이라 할 수 있으며, 脾의 納水穀하는 작용은 消化營養作

43) 金鍾元, 高炳熙, 宋一柄: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학회지 Vol.2. 1990. pp87-100

44) 水穀之溫氣 自胃院而化津 入于舌下爲津海 津海者津之所舍也 津海之清氣出 于耳而爲神 入于頭腦而爲髓海 髓海者神之所舍也 髓海之髓汁清者 內歸于肺 濁涕外歸于 皮毛 故胃院與舌耳頭腦皮毛 皆肺之黨也.

水穀之熱氣 自胃而化膏 入于臍間兩乳爲膏海 膏海者膏之所舍也 膏海之清氣出于目而 爲氣 入于背脊而爲膜海 膜海者氣之所舍也 膜海之膜汁清者 內歸于脾 濁涕外歸于筋 故胃與兩乳目背脊筋 皆脾之黨也.

水穀之涼氣 自小腸而化油 入于臍爲油海 油海者油之所舍也 油海之清氣出于鼻而爲血 入于腰脊而爲血海 血海者血之所舍也 血海之血汁清者 內歸于肝 濁涕外歸于肉 故小腸與臍鼻腰脊肉 皆肝之黨也.

水穀之寒氣 自大腸而化液 入于前陰毛際之內爲液海 液海者液之所舍也 液海之清氣出 于口而爲精 入于膀胱而爲精海 精海者精之所舍也 精海之精汁清者 內歸于腎 濁涕外歸 于骨 故大腸與前陰口膀胱骨 皆腎之黨也.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45)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46)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4. No.1. 1992. p19, p27

47) 趙鏞台, 宋一柄: 東醫壽世保元에서의 臟腑生理에 대한 小考.

사상의학회지 Vol.5. No.1. 1993. pp122-124

48)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用으로, 腎의 排出하는 기능은 大·小便의 排泄 및 生殖能力을 의미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것은 營養, 呼吸, 排泄의 기능을 의미하는 것이다.<sup>49)</sup>

또한 肺脾肝腎은 氣의 升降의 狀態를 대표하는 臟器이다. 즉 인체는 氣液代謝와 水穀代謝로써 생명활동을 영위하며, 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肺脾肝腎 四臟이니 肺脾肝腎은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활동의 담당자이다. 그러나 이 四臟의 氣로써 氣의 升降原理를 모두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四臟之氣는 四臟 각각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즉 氣液代謝나 水液代謝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四臟之氣일 뿐이지 四焦全體 즉 인체의 생명활동 전부를 설명하는 氣의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다.<sup>50)</sup>

또한 四象醫學의 臟理는 既存의 醫學理論과는 달리 體質에 相應하는 固有의 生理를 말하고 있는데 가장 核心的인 것은 心性이다.<sup>51)</sup> 즉 臟腑生理의 偏差에 따라 4體質의 分類가 생기는 것이다.

四腑의 形相과 그에 따른 機能을 살펴보면 “胃院은 口鼻과 通하여 水穀之氣가 上升하며,

大腸은 肛門과 通하여 水穀之氣가 下降하며, 胃는 그 體가 廣大하여 包容하니 水穀之氣가 停蓄하며, 小腸은 그 體가 좁고 屈曲하니 水穀之氣가 消導된다.”<sup>52)</sup> 고 하였다. 形相과 機能은 相互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sup>53)</sup> 그러나 四象醫學의 臟腑論에서는 肺-胃院, 脾-胃, 肝-小腸, 腎-大腸으로 表裏關係를 설정하였다. 이것은 四腑라 하여 주로 消化器系統을 말한 것으로 飲食物이 食道(胃院)로 들어가 胃에 停畜되었다가 小腸, 大腸을 통하여 肛門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氣化作用으로 胃에서는 薰蒸을 하여 熱氣가 되고, 小腸에서는 平淡한 涼氣가 된다. 다시 熱氣의 輕淸한 기운은 胃院으로 올라가 溫氣가 되고, 涼氣의 質重한 것은 아래로 내려와 寒氣로 변한다.<sup>54)</sup> 이것은 음식물이 消化되는 과정에서 溫·熱·涼·寒의 氣化作用으로 輕淸, 薰蒸, 平淡, 質重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한다.<sup>55)</sup> 또한 水穀은 脾에서 納하고 大腸으로 出하는데 이것은 각각 脾와 腎이 衛하고, 氣液은 胃院에서 呼하고 小腸에서 吸하는데 이를 肺와 肝이 각각 衛<sup>56)</sup>한다는 것은 그 臟이 主導의인 기능을 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49) 金義泰, 河智容, 安主錫: 四象醫學에서의 心의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학리학회지 Vol.8. 1993. pp245-258

50) 宋正模: 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의 背景에 대한 考察. 사상학회지 Vol.4. No.1. 1992. p19, p27

51)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85-87, pp92-93

52) 胃院通於口鼻故水穀之氣上升也 大腸通於肛門故水穀之氣下降也. 胃之體 廣大而包容 故水穀之氣停畜也 小腸之體 狹窄而屈曲故水穀之氣消導也.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53)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형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54) 水穀自胃院而入于胃 自胃而入于小腸 自小腸而入于大腸 自大腸而出于肛門者 水穀之 都數 停畜於胃而薰蒸爲熱氣 消導於小腸而平淡爲涼氣 熱氣之輕淸者 上升於胃院而爲 溫氣 涼氣之質重者 下降於大腸而爲寒氣.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55)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85-87, pp92-93

56) 曰水穀納於胃而脾衛之 出於大腸而腎衛之 脾腎者出納水穀之府庫而送爲補瀉者也 氣液呼於胃院而肺衛之 吸於小腸而肝衛之 肺肝者呼吸氣液之門戶而送爲進退者也. (太陽 人內觸小腸病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既存醫學에서는 各種 事物間의 連繫를 이해하고 동시에 事物의 變化法則을 관찰하기 위하여 五行을 중심으로 그 고유한 特性 및 種別하는 방법에 의하여 自然界와 人間의 關係事物로서 그 屬性·形態現象이 同類인 것을 각각 歸納시켜 五類로 구분하였는데 이를 五行의 歸類라고 한다.<sup>57)</sup>

古代醫家들은 五臟間에는 生理機能上의 어떠한 連繫性이 있음을 발견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五行學說을 응용하여 五臟間의 相互生成·相互制約의 關係를 論證하였다.<sup>58)</sup> 즉, 五臟機能 사이에는 相互生成과 相互制約의 關係가 있는데, 이들은 內臟機能의 平衡과 調和를 維持시키는 중요한 保證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한 “筋生心 血生脾 皮毛生腎 髓生肝”<sup>59)</sup>은 筋이 肝을 대표하고, 血이 心을 대표하고, 肌肉이 脾를 대표하고, 皮毛가 肺를 대표하고, 骨髓가 腎을

대표한다는 뜻이며, 五行學說로 보더라도 木生火·火生土·土生金·金生水·水生木으로서 五臟間의 相互生成이 連鎖인 相生關係를 형성한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五臟間의 相互制約에 관하여는 <素問·五臟生成篇>에서 “心之合脈也…其主腎也；肺之合皮也…其主心也；肝之合筋也…其主肺也；脾之合肉也…其主肝也；腎之合骨也…其主脾也”<sup>60)</sup>라고 하였으니 여기에서의 “主”에는 制約이라는 의미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相互生成과 相互制約은 全的으로 臟腑機能의 正常的인 現象으로서, 五臟間의 平衡狀態와 調和狀態가 維持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臟器間의 相互生成과 相互制約의 關係에 있는 것이다.<sup>61)</sup>

五行의 歸類는 橫的으로는 表裏關係爲主이고 縱的으로는 相生爲主로 되어 있으며 이를 다음과 같은 도표로 나타낼 수 있다.<sup>62)</sup>

<표 2>

五行	臟	腑	五官	五體	五志	時令	五氣	發展過程	五色	五味
木	肝	膽	目	筋	怒	春	風	生	青	酸
火	心	小腸	舌	脈	喜	夏	暑	長	赤	苦
土	脾	胃	口	肌肉	憂	長夏	濕	化	黃	甘
金	肺	大腸	鼻	皮毛	悲	秋	燥	收	白	辛
水	腎	膀胱	耳	骨	恐	冬	寒	藏	黑	鹹

57) 金完熙 外3人：韓醫學原論. 成輔社. 1982. pp34-35, p99, 101, 103, 106, 111, 336  
 58)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59)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60) 楊維傑：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61)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62) 金完熙 外3人：韓醫學原論. 成輔社. 1982. pp34-35, p99, 101, 103, 106, 111, 336

五臟의 個別機能을 보면 肝은 主疏泄, 藏血, 主筋, 其華在爪, 開竅於目; 心은 主血脈, 主神志, 主汗液, 其華在面, 開竅於舌; 脾는 主運化, 統血, 主肌肉·四肢, 其華在脣, 開竅於口; 肺는 主氣, 司呼吸, 主皮毛, 通調水道, 開竅於鼻; 腎은 藏精, 主骨, 生髓, 通於腦, 主納氣, 主發育生殖, 主水液, 司二便, 其華在髮, 開竅於耳及二陰한다. 六腑의 個別機能을 보면 胃는 主受納, 水穀腐熟; 大腸은 主糟粕傳送; 三焦는 統領原氣, 通調水道; 小腸은 主清濁分別; 膀胱은 主津液氣化, 小便排泄; 膽은 盛精汁한다.<sup>63)</sup>

六腑 사이의 關係를 살펴보면 한 마디로 轉化의 關係이다. 六腑의 全般的인 機能은 瀉泄하기는 하되 藏蓄하지는 않는 것이다. 이것은 飲食物이 體內로 들어가서 胃의 納入, 小腸의 受盛化物 및 大腸의 傳導, 化糟粕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體外로 排泄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消化, 吸收, 排泄은 六腑의 기능과 밀접한 關係를 맺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消化와 轉輸의 집단조직이라고 하는 것이며 <素問·六節藏象論>에서도 “六腑能化糟粕 轉味而入出者也”<sup>64)</sup>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임상상 一腑라도 그 기능이 正常狀態에서 벗어나거나 病變이 발생하면 모두 음식물의 轉化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sup>65)</sup> 五臟과 五腑는 陰陽的 表裏關係로 作用하며 이와 같은 法則을 五行的 思考로 表現하였다. 또 心和 腎의 關係성을

가지고 있는 心包·命門·三焦를 하나의 機能的인 臟腑로 규정한 것을 보아 觀念的이라고 할 수 있다.<sup>66)</sup>

既存醫學에서는 구조적으로는 臟腑를 五臟六腑로, 기능적으로는 인체의 臟器를 六臟六腑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 命門(心包)과 三焦는 無形而有用으로 하나의 觀念的臟腑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五臟五腑로 형성되었으며 陰臟과 陽臟의 종속關係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五臟은 陰臟, 五腑는 陽臟이라 하여 相互 表裏關係를 이루고 五行法則에 의해 相生, 相克作用으로 營爲한다.<sup>67)</sup> 이에 대하여 四象醫學에서는 四臟四腑로 되었고 게다가 臟에서 心이 분리되고 腑에서 膽·膀胱·三焦가 떨어져나간 동시에 三焦는 따로 四焦說을 형성하였다. 다시 말하면 五臟이 四臟이 됨에 따라 肺·脾·肝·腎이 四臟의 四象이 되고 心은 中央之太極으로 一身之主宰者가 된 것이다. 六腑說은 거의 무시되어 胃脘·胃·小腸·大腸이 四腑의 四象이 되며, 三焦說은 上·中上·中下·下焦의 四焦說을 형성하여 四腑의 四象과 그 部位를 일치한 것만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四象醫學에서의 三焦는 六腑의 하나인 三焦의 小概念에서 인체의 全機能의 四大圈이라는 大概念으로 擴充되어 四象醫學에서는 四臟四腑의 四象構造를 형성하여 그 氣의 偏差에 따른 生理現象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四象醫學의 臟腑論에서는 六腑說에 가름하여 四焦說이 더 중요한 의미를

63)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64)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65)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66)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85-87, pp92-93

67) 洪淳用: 四象診療保元. 書苑堂. 1991. pp85-87, pp92-93

가지게 된 것이다.<sup>68)</sup> 또한 四象醫學의 四焦는 人體의 全身機能發頭에 있어 既存醫學의 三焦보다 더 包括的이고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既存醫學의 臟象論에서는 內臟器의 기본이 되는 心, 肝, 脾, 肺, 腎에 종속된 五腑가 있어 小腸, 膽, 胃, 大腸, 膀胱으로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四象醫學의 臟腑論에서는 肺-胃院, 脾-胃, 肝-小腸, 腎-大腸으로 表裏關係를 설정한 것이 매우 다르다. 이것은 四腑라 하여 음식물이 氣化作用으로 溫·熱·涼·寒氣가 되는 消化系統일뿐만 아니라 出納水穀과 呼吸氣液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여기서 四臟과 四腑의 관계는 臟이 主導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六腑는 五行歸類에 따라 구성되었고, 四腑는 消化系統과 溫熱涼寒氣化의 上下升降作用에 따라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4. 四焦論

四象醫學에서는 人體의 形局氣象을 용이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人體를 定位的으로 관찰하였으며 人體生理現象을 主로 上下陰陽의 偏差와 對立的인 氣의 升降으로써 표현해왔다. 즉 上下陰陽의 偏差에 따라 四焦를 형성하는데 肺部位는 在脊下背上하고 胃院部位는 在頷下胸上하여 背上胸上 以上을 上焦라 하며, 脾部

位는 在脊하고 膈胃部位는 在膈하여 膈之間을 中上焦라 하며, 肝部位는 在腰하고 小腸部位는 在臍하여 腰臍之間을 中下焦라 하며, 腎部位는 在腰脊下하고 大腸部位는 在臍腹下하여 脊臍下 以下를 下焦라 한다.<sup>69)</sup> 즉, 四焦는 人體의 形局氣象을 판단하기 위한 定位的 概念이며 이에 따라 心身을 四象構造의 要素로 나누어서 上下陰陽의 偏差와 對立的인 氣의 升降을 효율적으로 설명하고 있다.<sup>70)</sup>

臟腑論에서는 上焦, 中上焦, 中下焦, 下焦의 四位를 기준으로 한 定位的 구분은 매우 철저하며 人體의 生理도 各焦內에서 시작하고 완수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四焦는 각각 臟腑의 生理的 機能을 포함하므로 人體가 필요로 하는 生理的 基礎物質이 生産되고, 轉化되며, 消耗되어지는 生命活動을 영위하는 大領域이다. 이곳에는 四臟四腑가 존재하며, 生理的 轉化物質이 보존되는 前後四海가 존재한다.<sup>71)</sup> 肺의 系列이 占有한 部位는 上焦로 溫氣의 流通 行路이고, 脾의 系列이 占有한 部位는 中上焦로 熱氣의 流通 行路이고, 肝의 系列이 占有한 部位는 中下焦로 涼氣의 流通 行路이며, 腎의 系列이 占有한 部位는 下焦로 寒氣의 流通 行路이다.<sup>72)</sup>

〈靈樞·營衛生會篇〉에서는 “上焦出於胃上口 并咽以上 貫膈而布胸中 走腋 循太陰之分 而行 還至陽明 上至舌…中焦亦并胃中 出上焦

68)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69) 肺部位 在脊下背上 胃院部位 在頷下胸上 故背上胸上以上 謂之上焦  
脾部位 在膈 胃部位 在膈 故膈之間 謂之中上焦  
肝部位 在腰 小腸部位 在臍 故腰臍之間 謂之中下焦  
腎部位 在腰脊下 大腸部位 在臍腹下 故脊臍下以下 謂之下焦.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70) 池圭銘,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71) 脚註44) 참고

72)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之後…下焦者 別迴腸 注於膀胱而滲入焉”<sup>73)</sup>이라 하여 三焦의 해부학적 영역과 분포에 대하여 이야기하였으며 <難經·三十一難>에서도 “上焦者 在心下膈 在胃上口…中焦者 在胃中脘 不上不下…下焦者 當膀胱上口”<sup>74)</sup>라고 하여 三焦의 부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三焦의 주요 生理機能은 크게 通行元氣와 水液運行의 道路로 나눌 수 있다. 三焦는 氣의 升降出入의 通路이며 氣化의 장소로 全身의 氣機와 氣化를 주관한다. 元氣는 인체의 가장 근본인 氣로 腎에 근거하는데 이것은 三焦를 통하여 全身에 이르게 된다. <難經31難>에서는 “三焦者 氣之所終始也”<sup>75)</sup>라 하였고 <難經38難>에서는 三焦를 “有原氣之別焉 主持諸氣”<sup>76)</sup>라 하였으며, <難經66難>에서는 “三焦者 原氣之別使也 主通行三氣 經歷五臟六腑”<sup>77)</sup>(여기서 “三氣”란 宗氣, 衛氣, 營氣를 말한다.)라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三焦가 氣의 升降出入의 通路이며 인체의 氣가 三焦를 통해 五臟六腑에 이르고 全身에 充滿된다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 또한 全身의 水液代謝는 肺, 脾胃와 腸, 腎과 膀胱 등 많은 臟腑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三焦를 통한 후에야 정상적인 升降出入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三焦의 通利水道作用이 원활치 않으면 肺, 脾, 腎 등의 水液을 輸布, 調節하는 작용이 生理的 效果를 나타내기 어려워지게 된다. 그래서 水液代謝의 協調平衡作用을 “三焦氣化”라 부른다.<sup>78)</sup>

三焦와 四焦는 生命활동의 大區域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 臟腑概念에 치중되어 인체의 부위를 설명하고 있다면, 四焦는 心慾, 體型氣像 및 臟理를 포함한 全機能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三焦는 生理的 作用만을 언급하지만, 四焦는 인간생활전체를 포함한 개념으로 그 大小에 따라 體질이 구분된다. 三焦와 四焦는 모두 生成作用 및 消耗作用을 하지만 四焦는 四海라는 用語를 제시해 生成作用의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三焦와 四焦는 모두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인 氣가 그 작용을 발휘하게 되는데 三焦가 氣의 上下升降을 中心으로 한다면, 四焦는 上下升降뿐만 아니라 各焦마다의 독특한 橫的인 氣의 循環과 그 偏差를 中心으로 한다.

## 5. 耳目鼻口

臟腑論에서의 耳目鼻口는 既存醫學의 耳目鼻口보다 廣義의 의미를 지닌다.

四象醫學의 臟腑論에서는 津液의 四海 清氣는 耳目鼻口의 廣博於天機하는 聽視嗅味之力에 의해 提出되어 四焦에 充滿하여 神氣血精이 되고, 神氣血精이 頭, 肩, 腰, 腎으로 注入되면 賦膜血精의 四海가 조성된다는 것이므로 耳目鼻口의 廣博於天機하는 힘이 절대적인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sup>79)</sup> 이와 같이 耳, 目, 鼻, 口의 작용이 깊고, 멀고, 넓고, 크면 全身氣血이 生成하고 발달하겠지만 만일 너무 가깝고, 낮고, 좁고, 적으면 全身氣血이 消耗

73)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台聯國風出版社，1976，pp197-200

74) 吳家鏡 譯：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1965，p215

75) 吳家鏡 譯：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1965，p215

76) 吳家鏡 譯：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1965，p253

77) 吳家鏡 譯：難經之研究，正言出版社，1965，p377

78) 印會河：東洋醫學叢書1-1，一中社，1990，pp46-47

79) 耳以廣博天時之聽力 提出津液之清氣 充滿於上焦 爲神而注之頭腦爲 積累爲賦海 目以廣博世會之視力 提出腎液之清氣 充滿於中上焦 爲氣而注之背脊爲膜積累爲膜海 鼻以廣博人倫之嗅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中下焦 爲血而注之腰脊爲血積累爲血海 口以廣博地方之味力 提出液海之清氣 充滿於下焦 爲精而注之膀胱爲精積累爲精海(臟腑論) 李濟馬：東醫壽世保元，杏林書院，1986，pp5-7，pp19-24

되는 것이다.<sup>80)</sup> 耳目鼻口의 作用如何에 따라 精神氣血의 능력이 결정되며, 인간의 邪心을 제거하여야만<sup>81)</sup> 耳目鼻口의 작용이 遠大廣深 하여서 精神氣血이 充滿하게 된다고 하였다.

四象構造의 그 内部構造인 耳目鼻口, 肺脾 肝腎, 頤臆臍腹, 頭肩腰腎 등은 단순한 物理的 肉體만이 아닌 精神的, 社會的 機能을 수행하는 主體로서의 機能的 人體概念이다.<sup>82)</sup>

既存醫學에서 五官이라 함은 耳·目·口·鼻·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들은 또한 七竅라고도 하며 여기에 二陰을 덧붙여 九竅라고 부른다. 既存醫學에서 耳目鼻口는 五臟機能의 外的 表現으로 七竅를 통하여 五臟不和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들 外在하는 九竅는 각기 나름대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七竅는 察色·聽音·辨味·辨臭하고 二陰은 大·小便을 맡아본다.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肝在竅爲目…心在竅爲舌…脾在竅爲口…肺在竅爲鼻…腎在竅爲耳”<sup>83)</sup>이라고 한 것은 七竅와 五臟의 관계를 설명한 것이고, <靈樞·脈度篇>에서는 “五臟常內閱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香臭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

和則目能辨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sup>84)</sup>라고 한 것은 五臟과 五官間의 內外關係 뿐만 아니라 五臟이 이들 七竅機能의 根源이 됨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에 根據하여 五官은 內臟精氣의 給養으로 말미암아 그 機能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85)</sup>

既存醫學의 五官은 五臟機能의 外的 表現으로 五臟과 表裏關係를 이루고 있으며, 四官(耳目鼻口)은 그 作用如何에 따라 精神氣血의 生成 및 精神機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既存醫學의 五官보다 더 廣義의 의미를 지닌다.

#### 6. 皮毛, 筋, 肉, 骨과 神, 氣, 血, 精

既存醫學에서 五臟은 骨·肉·筋脈·皮毛와의 사이에서 統一된 整體를 形成하고 있다. 그러므로 <素問·宣明五氣篇>에서 말한 “心主脈, 肺主皮毛, 肝主筋, 脾主肉, 腎主骨”<sup>86)</sup>이 五臟과 五體와의 相合關係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生理上 內外的 連繫性을 뜻하며<sup>87)</sup> 五行歸類에 따른다.

80) 是故 耳必遠聽 目必大視 脾必廣嗅 口必深味 耳目鼻口之用 深遠廣大則精神氣血生也 淺近狹小則精神氣血耗也 肺必善學 脾必善問 肝必善思 腎必善辨 肺脾肝腎之用 正直 中和則津液膏油充也 偏倚過不及則津液膏油燥也 (臟腑論)

李濟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81)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 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학회지 Vol.2. 1990. pp87-100

82)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83)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84)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85, p87, p190, 259, 494

85)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86)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87)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四象醫學에서 皮毛·筋·肉·骨은 각각 肺黨·脾黨·肝黨·腎黨과 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後四海의 濁滓가 外로 皮毛筋肉骨에 歸한 것이며<sup>88)</sup> 또 人體의 表部에서 裡部로의 순서에 따른 四象構造에 따른 것이다.

神·氣·血·精은 인간의 生命의 根本으로서 古代에 養生을 講究하던 사람들도 이를 매우 중요시하였다. 神·氣·血·精은 비록 서로 다른 점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不可分割의 整體를 이루고 있으니 <靈樞·本神篇>에서 “是故五臟主藏精也 不可傷 傷則失守而陰虛 陰虛則無氣 無氣則死矣”<sup>89)</sup>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五臟은 精을 藏하고 있고 精은 神의 舍가 되므로 精이 있으면 神도 있게 되며 이 精을 蓄積하면 神이 穩全해진다. 또한 精은 氣의 母가 되니 精이 虛하면 氣가 없어지고 氣가 없어지면 죽게 된다. 血은 人體가 필요로 하는 풍부한 營養을 함유하고 있으며 氣의 推動作用에 의하여 經脈을 따라 全身에 運行한다. 氣는 血之師가 되고 血은 氣之母가 되며 氣行則血行 氣滯則血凝한다.<sup>90)</sup> 한편 神·氣·血·精의 生成은 水穀의 精微와 五臟六腑의 正常的인 機能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며, 五臟六腑의 機能이 또한 神·氣·血·精에 의뢰함으로써 物質의 基礎를 이루고 있으니,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 사이에는 相互消長과 相互關聯 및 相互促進의 關係가 이루어지게

된다.”<sup>91)</sup>

四象醫學에서는 前四海에서는 神氣血精을 生成시키고 後四海에서는 神氣血精을 消耗하고 있다. 前四海의 清氣가 耳目鼻口에서 出하여 神氣血精이 된다.<sup>92)</sup> 즉 耳目鼻口의 廣博天機하는 聽視嗅味力에 의하여 前四海의 清氣가 上焦에 充滿되어 神氣血精을 生成한다.<sup>93)</sup> 그러므로 “耳目鼻口之用이 深遠廣大하면 精神氣血이 生하고, 淺近狹小하면 精神氣血이 耗한다”<sup>94)</sup>고 하였다. 그리고 이 神氣血精이 四行(頭腦, 背脊, 腰脊, 膀胱)에 注하여 脈·膜·血·精의 後四海를 형성하며 그 後四海의 清氣는 內로 肺·脾·肝·腎에 歸하고 濁滓는 外로 皮毛·筋·肉·骨에 歸하므로<sup>95)</sup> 神氣血精은 水穀之四氣에 의하여 生成되어 四臟과 皮毛筋肉骨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神氣血精은 既存醫學에서의와 같이 相互轉換하는 관계는 아니며 水穀之四氣마다 橫的인 循環을 이루고 있으며, 그 生成과 消耗은 耳目鼻口之力에 따른다.

## 7. 四海論

既存醫學에서는 <靈樞·海論>에서 “岐伯答曰 人亦有四海十二經水 經水者 皆注於海 海有東西南北 命曰四海”<sup>96)</sup>라 하여 海를 經氣가 흘러드는 곳으로 인식하였다. <素問·陰陽應象大論>은 “六經爲川 腸胃爲海 九竅爲水注之

88) 脚註44) 참고

89)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85, p87, p190, 259, 494

90)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91)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92) 脚註44) 참고

93) 脚註73) 참고

94) 脚註74) 참고

95) 脚註44) 참고

96) 楊維傑：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85, p87, p190, 259, 494



氣”<sup>97)</sup>라 하였고 <素問·痰論>은 “陽明者 五臟六腑之海”<sup>98)</sup>하여 胃를 중심으로 水穀氣血이 모이것은 곳으로 인식하였다.

四象醫學에서 海란 의미는 既存醫學과 비슷한데 上·中上·中下·下焦의 各腑로부터 化生된 津液이 各焦로 흘러들어가 前·後四海를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津液과 精神氣血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의 清濁에 의해 肺脾肝腎과 耳目鼻口 및 肢體의 生理가 發顯된다.<sup>99)</sup> 즉 四象醫學은 四海說이라고 할 수 있다.<sup>100)</sup>

그러나 東武의 四海論은 既存醫學과 달리 天性和 人命의 기준에 前後의 陰陽을 配對한 哲學的 論理概念의 抽象化이지 醫學的 立場의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이 四海論은 그의 臨床經驗에서 活用하기가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前後四海의 해당부분이 各 四象人에게 대개 盛하다는 점에서는 醫學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sup>101)</sup>

## 8. 循環論

水穀之四氣(溫, 熱, 涼, 寒)는 耳目鼻口의 廣博於天機하는 聽視嗅味力에 의해 人體에 吸收되어 四腑(胃院, 胃脘, 小腸, 大腸)에서 前四海(津膏油液)로 化한 후 前四海의 清氣가 四官(耳目鼻口)에서 精神氣血을 생성한 후 四行(頭腦, 背脊, 腰脊, 膀胱)에 入하여 後四海(臑膜血精)를 형성하여 그 後四海의 清氣는 內로 肺脾肝腎에 歸하고 濁滓는 外로 皮毛筋肉骨에 歸한다.<sup>102)</sup> 頤臑臍腹에서 일어나는 津膏油液海에서는 神氣血精을 生成시키고 頭肩腰臂에서 일어나는 臑膜血精海에서는 神氣血精을 消耗하고 있다. 이것은 前四海와 後四海를 清濁에 따라 앞뒤로 나누어 相互循環하는 관계를 형성해 놓았다.<sup>103)</sup> 이와 같이 前·後四海에서는 津液과 神氣血精의 순환이 이루어지고 그의 清濁에 의해 肺脾肝腎과 耳目鼻口

97)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98)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99)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100)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생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3-92

101)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102) 脚註44) 참고

103) 脚註73) 참고

肺以鍊達事務之良力 吸得臑海之清汁 入于肺 以滋肺元而內以擁護津海 鼓動其氣 凝聚其津 脾以鍊達交友之怒力 吸得臑海之清汁 入于脾 以滋脾元而內以擁護膏海 鼓動其氣 凝聚其膏 肝以鍊達黨與之喜力 吸得血海之清汁 入于肝 以滋肝元而內以擁護油海 鼓動其氣 凝聚其油 腎以鍊達居處之樂力 吸得精海之清汁 入于腎 以滋腎元而 內以擁護液海 鼓動其氣 凝聚其液.

津海之濁滓則胃院以上昇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院

膏海之濁滓則胃以停蓄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胃

油海之濁滓則小腸以消導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小腸

液海之濁滓則大腸以下降之力 取其濁滓而以補益大腸.

臑海之濁滓則頭以直伸之力 鍊達之而成皮毛

膜海之濁滓則手以能收之力 鍊達之而成筋

血海之濁滓則腰以寬放之力 鍊達之而成肉

精海之濁滓則足以屈強之力 鍊達之而成骨. (臟腑論)

李漢馮: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및 肢體의 生理가 발현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氣局의 循環論이다.<sup>100</sup> 따라서 前四海는 神氣 血精을 化하는 耳目鼻口의 근본이 되며 後四海는 神靈魂魄을 藏하는 臟膜血精海로서 肺脾肝腎의 根本이 된다.<sup>105</sup> 이러한 四象醫學의 前後四海論은 四象醫學의 유일한 生理的 循環論이기는 하나 既存醫學的으로는 그 해석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sup>106</sup>

또한 水穀之氣는 溫熱涼寒으로 구분하여 胃의 停蓄之력에 의하여 薰蒸된 熱氣를 흡수하고 小腸의 消導之력에 의하여 平淡한 涼氣를 흡수하는데, 熱氣中 輕清者는 胃院의 上升之력에 따라 溫氣로 上焦로 上升하고, 涼氣중 質重者는 大腸의 下降之력에 의하여 寒氣로 下焦로 下降하게 된다.<sup>107</sup> 다시 말해서 溫熱涼寒의 구분도 氣의 輕清과 質重에 따른 氣의 陰陽의 偏差에 따라 四焦에 분포된다.<sup>108</sup>

人體는 비록 皮筋肉骨로 구성되고 機能을 지닌 器官으로는 耳目鼻口와 肺脾肝腎이 있지만 이들은 다 兩大四海 안에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sup>109</sup> 이와 같이 生命論의인 機能을 수행케하는 機能의 單位인 氣가 존재하여 各焦마다 독특한 上下內外表裏의 升降進退의 偏差를 가지고 그에 따른 生理的 病理的 상

황을 만들어 낸다. 각각 四焦를 구성하는 氣의 生成, 轉化 및 消費 하나하나의 단위로서 이들 사이에는 전체가 하나로서의 統合된 調整의 機構를 통하여 차질없이 機能을 수행하지만 各焦마다의 분포하는 氣의 相異함으로 인하여 그의 生氣論의, 生理論的, 形態學的 相異함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sup>110</sup>

그러나, 既存醫學的 側面에서 보면 人體의 臟腑와 四肢, 百骨節 등은 모두 整一한 질서를 갖고 連繫되어 있으며 相通·相合·表裏·開竅 등의 구체적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整體性은 바로 十二正經, 十六大絡, 奇經八脈, 浮絡, 孫絡 등의 經絡體系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모든 心身事物과 그 부분들은 陰陽으로 구별되고 五行으로 歸類된다. 五行인 木火土 金水는 서로 生克乘侮하며 木은 火로 발전하고 火는 土의 바탕으로 金으로 收斂하여 水로 含藏하였다가 다시 木으로 發한다. 이러한 陰陽五行의 關係와 循環은 天人과 人體內의 모든 현상을 제약규정하고 종합정리하는 總綱이 된다.<sup>111</sup>

飲食物의 消化와 輸布過程을 살펴보면 飲食物은 口腔과 食道를 지나서 胃로 들어가고 胃에서 腐熟되어진 후에 小腸으로 전해지며,

104) 池圭銘,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105) 臟海藏神 膜海藏靈 血海藏魂 精海藏魄.

津海藏意 骨海藏慮 油海藏操 液海藏志.

頭腦之賦海 肺之根本也 背脊之膜海 脾之根本也 腰脊之血海 肝之根本也 膀胱之精海 腎之根本也.

舌之津海 耳之根本也 乳之骨海 目之根本也 膈之油海 鼻之根本也 前陰之液海 口之根本也. (臟腑論) 李濟

馬: 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1986. pp5-7, pp19-24

106) 池圭銘,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107) 脚註44) 참고

108) 宋一炳,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 p137, pp143-145

109) 洪淳用, 李乙浩: 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110) 宋一炳, 洪錫喆: 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6. No.1. 1994. p137, pp143-145

111) 池圭銘,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小腸에서는 清濁分別作用을 거쳐서 營養物質인 清者는 精華가 되어 肺로 上輸하여 吸收되고, 濁者는 糟粕이 되어 大腸으로 下注하며, 大腸에서는 水分이 흡수되어진 후에 糞便의 형태로서 肛門을 통하여 排出된다. 脾에 의하여 흡수된 營養物質은 肺로 上輸하여 肺에 의하여 吸入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된 다음 心脈으로 貫注하여 “濁氣歸心”, “散精於肝”하면서 각각의 臟器로 散布되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脾가 散布하는 後天之精은 腎精에 의하여 不斷히 充養되어져야 하고 脾의 運化機能 또한 腎氣의 溫煦作用에 의존해야 한다. 따라서 飲食物의 輸布는 脾의 運化機能 뿐만 아니라 肝氣의 疏泄作用, 腎氣의 溫煦作用, 肺氣의 宣散作用 및 心脈의 運載作用 등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밖에 五臟이 營養物質에 의하여 充養되어진 후에는 다시 皮毛·肌肉·筋·骨 등의 組織과 器官으로 精을 分別하여 輸布하게 된다.<sup>112)</sup>

水穀氣血의 海인 胃를 중심으로 上下升降을 말한다면 脾陽의 運化力으로써 穀氣를 上升시켜 上部의 心肺陽氣 즉 經氣를 타고 經脈에 流行하며 胃에서 腐熟하고 남은 糟粕은 小腸으로 轉化下行하여 臍腹全部에 걸치며 결국에는 最下部인 膀胱과 大腸으로 下行하여 排出한다.<sup>113)</sup>

따라서 四象醫學이나 既存醫學 모두에 있어서 出納代謝에 관한 관찰은 서로 비슷하지만 清濁部分에 있어서는 다르다. 즉 既存醫學에서는 脾肺로 上升하여 經氣로 化한 것이 清氣요 府를 통해 排出되는 것이 濁陰이지만, 四象醫學에서는 前後四海論에 濁陰의 概念이

등장한다.<sup>114)</sup> 既存醫學에서는 臟腑間의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의 相互循環을 中心으로 하는 반면, 四象醫學에서는 氣의 偏差에 따른 上下升降의 측면과 함께 四海를 중심으로한 橫의 循環을 포함하고 있다. 즉 臟腑論은 上下·前後·內外的 중심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 III. 結 論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에 사용된 臟腑의 名稱과 語彙를 중심으로 四象 臟腑論의 특징을 고찰해 본 결과 아래와 같은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1. 四象醫學은 四象構造中心의 臟腑論을 전개하고 있다.

2. 四象醫學의 心은 一身의 主宰者로서 耳目鼻口·肺脾肝腎·頭肩腰腎·頤臍臍腹의 역할을 조절하는 총괄자로 인식된다.

3. 四臟과 四腑는 氣의 上下陰陽偏差에 따른 四象構造를 이루고 있으며, 呼吸氣液과 出納水穀의 작용에 있어서 臟이 主導的인 역할을 한다.

4. 三焦와 四焦는 生命활동의 大區域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三焦가 六腑의 하나로 臟腑概念에 치중되어 있다면, 四焦는 定位의 概念의 體型氣像 및 心慾과 臟理를 포함한 全機能을 설명하고 있다.

5. 耳目鼻口는 天機와 관련되며 神氣血精의 生成 및 精神機能과 밀접하여 既存醫學의 五官보다 더 廣義의 의미를 지니며 皮毛·筋·肉·骨은 人體의 表에서 裡로의 순서에 따른

112)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成輔社. 1988. pp41-46, pp395-396, p398

113)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114)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1989. pp67-68, pp72-73, pp81-82

四象構造에 의한다.

6. 四象醫學에서 海란 水穀氣血이 모인다는 의미에서는 비슷하지만 東武의 四海論은 既存醫學과 달리 天性和 人命의 기준에 前後의 陰陽을 配對한 哲學的 論理概念이다.

7. 神氣血精은 既存醫學에서와 같이 相互轉化하는 관계는 아니며, 水穀之四氣에 의하 여 생성되어 四臟과 皮毛筋肉骨이 되나 그 生成과 消耗는 耳目鼻口之力에 따른다.

8. 四象醫學이나 既存醫學에 있어서 出納代謝에 관한 관찰은 서로 비슷하지만 既存醫學에서는 五臟의 陰陽五行의 相生相克의 相互循環을 中心으로 하는 반면, 四象醫學에서는 氣의 上下陰陽偏差에 따른 上下升降과 四海를 중심이로한 橫的 循環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東醫壽世保元 臟腑論은 人間과 社會를 중심이로 한 哲學的 思考 및 四象構造에 따른 四焦와 四海說 측면에서 이해하여야 하며, 臟腑論의 중심개념은 一身之主宰로서의 心論이라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 1) 金完熙 外3人：韓醫學原論. 成輔社. 서울. 1982. pp34-35, p99, 101, 103, 106, 111, 336
- 2)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成輔社. 서울. 1988. pp41-46, pp395-396, p398
- 3) 文潑典, 安圭錫, 崔昇勳：東醫病理學. 高文社. 서울. 1990. pp185-186
- 4) 朴爽彦：格致藥. 太陽社. 서울. 1985. p13, p193, pp287-289
- 5) 朴贊國：臟象學. 成輔社. 서울. 1992. pp 165-168
- 6) 成校珍：한국유학의 철학사상. 以文出版社. 대구. 1990
- 7) 李乙浩：한국개신유학서론. 博英社. 서울. 1982. pp360-385
- 8) 李濟馬：東醫壽世保元. 杏林書院. 서울. 1986. pp5-7, pp19-24
- 9) 李 挺：編註醫學入門(臟腑). 大星文化社. 서울. 1986. p326
- 10) 張介賓：類經圖翼. 大星文化社. 서울. 1986. p79
- 11) 洪淳用, 李乙浩：四象醫學原論. 행림출판. 서울. 1985. pp16-17, p37, pp79-81, pp85-86, pp88-92
- 12) 洪淳用：四象診療保元. 書苑堂. 서울. 1991. pp85-87, pp92-93
- 13) 高炳熙, 宋一炳：李濟馬의 心論에 관한 小考. 대한한의학회지 Vol.5.No.1.April. 서울. 1984. p40, p43
- 14) 金義泰, 河智容, 安圭錫：四象醫學에서의 心の 概念 設定에 관한 研究. 동의병리학회지 Vol.8. 서울. 1993. pp245-258
- 15) 金鍾元, 高炳熙, 宋一炳：四象醫學의 臟腑論에 대한 考察. 사상학회지 Vol.2. 서울. 1990. pp87-100
- 16) 宋一炳, 洪錫喆：東醫壽世保元의 四焦說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6. No.1. 서울. 1994. p 137, pp143-145
- 17) 宋正模：四象醫學의 原理와 哲學的 背景에 대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Vol.4. No.1. 서울. 1992. p19, p27
- 18) 趙鏞台, 宋一炳：東醫壽世保元에서의 臟腑生理에 대한 小考. 사상의학회지 Vol.5. No.1. 서울. 1993. pp 122-124

- 19) 池圭鎔, 安圭錫: 四象醫學과 既存醫學의 關係 및 解析에 대한 研究. 사상학회지 Vol.1. No.1. 서울. 1989. pp67-68, pp72-73, pp81-82
- 20) 楊維傑: 黃帝內經素問譯解. 台聯國風出版社. 台聯. 1976. pp49-52, pp76-78, pp89-90, pp93-95, P337, p496
- 21) 楊維傑: 黃帝內經靈樞譯解. 台聯國風出版社. 台聯. 1976. p85, p87, p190, 259, 494
- 22) 吳家鏡 譯: 難經之研究. 正言出版社. 中國. 1965. p215, p253, p377
- 23) 印會河: 東洋醫學叢書1-1. 一中社. 서울. 1990. pp46-47
- 24) 曾昭明, 何清平: 中醫臟象學解要釋難. 廣西民族出版社. 中國. 1992. pp7-8